

# ‘셔틀콕 코리아’ 세계선수권 금3·동1... AG 금 전망 밝다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  
안세영 단식 사상 첫 금 이어  
혼복 서승재-채유정 깜짝 우승

한국 배드민턴이 2023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전체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을 석권했다. 배드민턴 대표팀은 28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끝난 대회에서 여자 단식, 혼합복식, 남자복식을 제패하고 여자복식을 최종

3위로 마무리했다. 3개 종목 우승은 한국 배드민턴이 올해로 28회를 맞은 세계선수권에서 거둔 역대 최고 성적이다. 종전 기록은 2개 종목 우승으로 1985년, 1991년, 1999년 대회에서 기록한 바 있다. 3개 대회 모두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이 나왔다. 아울러 4개 종목 입상은 역대 최다 입상 타이 기록이기도 하다. 앞서 1991년(여자 단·복식, 남자복식, 혼합복식), 1995년(여자 단·복식, 남자 단·복식), 2013년(여자 단·복식, 남자복식, 혼합복식) 등 3차례의 4

개 종목 입상이 있었다. 세계개인선수권은 개인전 5개 종목(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 중 최고 권위를 가진 국제 대회다. 안세영(21·삼성생명)은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6위 카롤리나 마린(30·스페인)을 2-0(21-12 21-1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혼합복식에서는 서승재(삼성생명)-채유정(인천국제공항)이 세계 1위 정승웨이-황아층(중국)을 2-1(21-17 10-21 21-18)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03년 대회에서 우승한 김동문-라경민 이후 20년 만에 나온 쾌거다. 서승재-채유정은 이날 전까지 정승웨이-황아층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내리 9패를 당했지만, 세계선수권 우승 길목에서 값진 첫 승을 따냈다. 남자복식에서는 서승재-강민혁(이상 삼성생명)이 김 아스트루프-아네르스 스카루프 라스무센(덴마크)을 2-1(14-21 21-15 21-17)로 극적으로 눌렀다. 상대가 홈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힘입어 1세트를 가져갔지만, 서승재-강민혁은 흔들리지 않고 2, 3세트를 따내 역전승했다.

남자복식 우승은 2014년 대회에서 고성형-신백철과 유연성-이윤대가 남자복식 금, 은메달을 나눠 가진 이후 9년 만이다. 서승재는 혼합복식에 이어 금메달을 추가하며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여자복식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은 앞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아프리카니 라하유-시티 파디아 실바 라마드한티(인도네시아)에게 0-2(9-21 20-22)로 패해 최종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 호블란 PGA 페덱스컵 우승 ... 238억원 '잭팟'



28일(한국시간) 막을 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우승으로 2022-2023시즌 페덱스컵 챔피언에 오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고 있다. 호블란은 상금으로 1800만 달러(약 238억원)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김주형과 김시우는 공동 20위에 올랐고, 임성재는 24위로 경기를 마쳤다. 김주형과 김시우는 보너스 상금 62만 달러, 임성재는 56만5000달러를 받았다. /연합뉴스

## 돌풍의 광주FC, 3위 '점프'

수원삼성에 4-0 대승  
열악한 인프라에 아쉬움



광주FC가 수원삼성을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며 3위로 점프했다. 화려한 대승에도 '아쉬움'을 이야기한 승리의 주역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광주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의 K리그 2023 28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8분 나온 이희균의 골을 시작으로 공세에 나섰다. 안영규가 찢러 준 공을 잡은 이희균은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볼키퍼를 마주한 채 왼발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37분에는 아사시가 토마스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골대를 갈랐다. 후반에는 엄지성이 주인공이 됐다. 후반 시작 1분 만에 엄지성이 아사시와 점수를 합작했다. 왼쪽에 있던 엄지성은 반대편에 있던 아사시에게 공을 넘긴 뒤 문전으로 달려들었다. 아사시가 다시 엄지성에게 공을 보냈고 엄지성이 왼발로 공을 터치해 3-0을 만들었다. 5분 뒤 다시 한번 엄지성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정호연의 도움을 받은 엄지성은 상대 수비진 틈에서 오른발로 공을 감아 차 멀티골에 성공했다. 이후 광주는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승리로 8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또 이날 승리로 전북현대와 승점 42로 동률을 이뤘지만 득점에서 앞서면서 울산현대(승점 61), 포항스틸러스(승점 50)에 이어 3위에 자리했다. 광주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3위가 됐지만 경기가 끝난 뒤 승자들의 입에서는 '아쉬움'이 나왔다. "패스가 오는 순간 골이라고 생각했다. 이걸 못 넣으면 더 이상 축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웃음을 터트린 이희균. 그는 "그동안 과정은 좋았는데 포인트가 없어서

기를 못 펴고 살았다. 골을 넣어서 좋다"면서도 "경기가 어렵다. 오늘은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든다. 경기력은 감독님한테 혼날 준비를 해야겠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멀티골에도 엄지성은 "아쉬움이 더 많은 것 같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엄지성은 "전반전에 좋은 상황을 골로 연결하지 못해서 팀원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후반전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엄지성은 환상적인 골로 박수를 받았다. "골을 넣어야겠다는 갈망이 커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던 것 같다. 모든 선수를 믿고 움직이는데 마침 (아사시의) 좋은 패스가 와서 그런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첫 골을 이야기한 엄지성은 두 번째 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슈팅이다 보니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때렸는데 그런 멋진 골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축구 역사를 바꾸고 있는 이정효 감독은 '감동'으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평가한 뒤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민구단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K리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는 '이정효표 공격 축구'로 팬들을 환호케 하고 있다. 일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된 이날 경기에도 5014명이 입장하는 등 광주는 성적은 물론 팬들의 열기에서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마음놓고 훈련을 할 수 없는 열악한 인프라가 이정효 감독에게는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정효 감독은 "선수들은 경기장에 많은 팬이 찾아오게 만들고 있고, 나는 선수들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구단 가치도 많이 높였다. 그 위치에 맞게끔 조금 더 환경적으로 개선 된다면 구단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과 광주의 축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뜨거운 방망이로 순위 상승 노린다

### T 타이거즈 전망대

'부상' 암초를 만난 KIA 타이거즈가 뜨거운 방망이로 순위 상승을 노린다. KIA는 지난 27일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에서 5-2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4연승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의리의 조기 강판과 수비 실수 연발 속 한 주를 역전패로 시작했지만, 비로 분위기를 바꾼 뒤 박찬호의 눈부신 활약 속 고영표를 내세운 KT를 상대로 승리를 낙였다. 이어 한화전 스윕으로 4승 1패의 전적을 기록, 두산을 6위로 내리고 5위에 자리했다. 5위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부상 이슈가 KIA를 흔들고 있다. 지난 주 의리리와 산체스 두 선발이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이의리는 후반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상황, 산체스는 KBO리그 첫 7이닝 경기를 소화한 뒤 이취진 말소다. 일단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이의리는 단순 염증 진단을 받으면서, KIA와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산체스의 상황은 다르다. 25일 한화전에서 7이닝 1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던 산체스는 28일 김진섭 정형외과와 세종스포츠정형외과 두 곳에서 검진한 결과 오른쪽 팔꿈치 내

지난 주 4승 1패...5위 올라  
NC 상대 안방 주중 3연전  
주말에는 SSG와 원정 경기

측측부 인대 부분 손상 및 충돌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주사 치료를 하면서 3주 가량 재활을 해야 하는 만큼 산체스의 공백은 길어질 전망이다. 선발진의 잇단 부상으로 KIA는 새로운 한 주, 시작부터 대체 선발을 투입한다. KIA는 29일부터 NC를 상대로 안방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SSG안방으로 가서 원정 3연전에 나선다. 주말 스윕승을 기록한 KIA와 NC의 흥미로운 대결. 4위 NC가 5위 KIA와 두 경기 차로 앞서 있는 만큼 더 관심이 쏠리는 시리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중요한 승부지만 시작부터 험난하다. 이의리가 빠진 자리에 김건국이 대체 선발로 나서 신민혁과 맞대결을 벌인다. 당장 산체스의 빈자리도 채워야 하고, '고졸 루키' 운영철도 최근 3경기에서 5회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운영철 고민도 남았다. 4연승을 합작한 투-타 최고참의 연륜과 활약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부진으로 재정비 시간을 보낸 양현종은 지난 26일 한화전을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다. 3회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을 최소화한 양현종은 6이닝 2실점을 기록,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침 없이 달려왔던 양현종에게는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힐링' 시간이 됐다. 마음을 비우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안정감과 구위를 더해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보태줬다. 최형우는 '해결사'에 맞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 주 18타수 8안타, 0.444의 타율을 찍은 최형우는 2개의 홈런까지 더해 8타점을 수확했다. 또 부진 없이 달려왔던 양현종은 안정감과 구위를 더해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보태줬다. 최형우는 '해결사'에 맞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 주 18타수 8안타, 0.444의 타율을 찍은 최형우는 2개의 홈런까지 더해 8타점을 수확했다. 또 부진 없이 달려왔던 양현종은 안정감과 구위를 더해 위기의 마운드에 힘을 보태줬다. 베테랑의 힘과 함께 김종국 감독의 '용병술'도 성적을 좌우할 키다. KIA는 지난 주 최원준의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외야 이동을 감행했다. 익숙하지 않은 1루에서 실수가 이어지면서 공격에도 악영향을 미쳐 변화를 줬다. 변화를 준 KIA는 엔트리 활용폭도 넓히면서 타선의 상승세를 잘 활용해야 한다. SSG와의 대결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확대엔트리도 적용되는 만큼 과감하고 폭넓은 엔트리 운영으로 부상으로 맞은 마운드 위기를 넘겨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클린스만, 축구 A대표팀 광주FC 이순민 발탁

유럽 원정 친선경기 25명 선발

광주FC의 미드필더 이순민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축구협회가 28일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에 나설 남자 A대표팀 25명 명단을 발표했다.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김영권(울산현대),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울림피아코스), 황희찬(울버햄튼), 조규성(미트윌란) 등 주축 선수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순민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은 내달 4일 집결해 1차전이 열리는 웨일스로 출국한다. 한국시간으로 8일 웨일스를 상대하는 대표팀은 13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결한다. 처음 국가대표에 발탁된 '광주 부주장' 이순민은 왕성한 활동량과 커팅, 빌드업, 강력한 중거리슛, 완벽한 경기 조율 등 중앙미드필더의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2017년 광주에 입단한 이순민은 포천시민축구단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2020시즌 팀에 복귀해 광주의 창단 첫 파이널 A 진출과 K리그1 역대 최고순위(6위)에 기여했다. 2021시즌 묵묵하고 헌신적인 플레이로 입지를 넓힌 이순민은 2022시즌에는 광주의 우승을 이끌며 K리그2 시상식에서 '베스트11'으로 단상에 올랐다. 지난 7월에는 '쿠방플레이 시리즈' 팀 K리그에 발탁돼 세계적인 명문 구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순민

상대했고, 이 경기에서 이순민은 후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장식하면서 축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순민의 발탁에 대해 "이순민은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다. 이런 새로운 선수들의 발탁은 아시아권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은 "첫 태극마크라는 영광을 광주라는 팀에서 이룰 수 있어 기쁘다"며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광주라는 자부심을 안고 국가대표다운 모습으로 팀과 나라를 빛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구국가대표팀 9월 유럽 원정 친선경기 소집 명단(25명)> GK: 김승규(야사범), 조현우(울산현대), 김준홍(김천상무) DF: 이순민(광주FC), 김영권, 정승현, 설영우(이상 울산현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기재(수원삼성), 김주성(FC서울), 강상우(베이징 궈안), 김지수(브렌트포드) MF: 손흥민(토트넘), 문선민, 안현범(이상 전북현대), 박용우(알아인), 양현준(셀틱), 이동경(울산현대), 이재성(마인츠), 홍현석(KAA헨트), 황인범(울림피아코스), 황희찬(울버햄튼) FW: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